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원 망 스 럽 던 세 상 이 아 름 답 고 고 맵 게 느 껴 집 니 다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김상철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종교의 힘으로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봉사하며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집사람 둘 다 개인회생 중이어서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견뎌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저를 나무라시며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못 받은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바로 병원 사회사업팀을 연결해 주셔서 아산재단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무사히 시술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니 온통 제 세상 같습니다. 구름 낀 하늘도 맑게 보이고 집사람을 보면 감사의 눈물이 나고, 주위 분들이 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산재단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마워서 눈물만 납니다. 저보다 더 아픈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먼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을 갚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회생을 마치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인생을 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드림**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사례를 관리하는 지원기관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에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청소년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어 어머니가 대신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이미 주거급여와 장애수당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아산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틀도 되지 않아 아산재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함께 집으로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빠른 현장 방문도 인상적이었지만,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하며 상담하시는 모습이 더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급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아버지는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예민하던 가족의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이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안내와 빠른 서류 검토, 현장방문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준 아산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빛나 드림

